

예방/생활습관

심방세동은 커피와 술, 흡연, 과식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이 외에도 건강보조식품, 성분을 잘 모르는 한약, 기름기가 많은 육류, 튀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노선안내

- 버스** 250 / 524 / 527 / 564 / 655 / 성서1 / 성서2 / 급행1
- 지하철** 2호선 강창역내에서 병원 지하로 진입
강창역 6번 출구에서 병원 지상으로 진입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QR코드 · 심방세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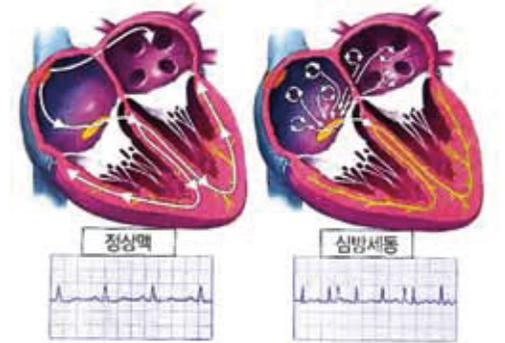
심장내과(심혈관센터)
TEL (053) 258-4601~3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대표전화 TEL 1577-6622 www.dsmc.or.kr

심장내과 심방세동 Cardiology

심방세동이란?

심방세동은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분당 300-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여 불규칙한 맥박을 일으키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입니다.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매우 빠르고 제멋대로 전도 되어 심방은 정상적인 수축을 하지 못하며, 빠른 심방 내 전기신호는 방실 결절을 통해 매우 불규칙하게 심실로 전도가 되므로 심장박동이 빠르며 박동간격이 불규칙한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의 종류

발작성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저절로 1주일 이내에 정상맥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속성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1주일 이상 지속되고 전기 충격이나 약물에 의해서만 정상맥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발생된지 너무 오래 된 경우로, 정상맥으로 돌리기 어려워져 심실 맥박수만 빠르지 않게 치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심방세동의 증상

- 무증상
- 가슴 두근거림: 크게 뛰고, 가슴이 흔들리는 느낌
- 무기력하고 피곤한 느낌
- 어지러움: 머리가 핑 도는 느낌
- 숨이 차다, 운동시 호흡곤란
- 흉부 압박감



심방세동의 원인

심방세동의 원인은 다양하며, 과거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노화나 고혈압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원인

노화,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심근질환, 심낭염, 동기능부전, 심장수술 후, 심방중격 결손증 등

심장 외 원인

만성 폐질환, 폐렴, 폐색전증, 갑상선 항진증, 음주, 과식, 전해질 불균형 등

심방세동의 진단/검사

만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간단한 심전도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되지만 발작성 심방세동일 경우는 심방세동이 발생하였을 때 심전도를 찍어야만 진단이 가능하며,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 경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손목의 맥을 짚어서 맥의 강도가 다르고 간격도 매우 불규칙하면 의심할 수 있고 심전도,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외에 심방세동과 관련된 심장질환 유무와 좌심방 확장 정도를 알기 위하여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 검사나 갑상선 질환 유무를 알기 위하여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의 치료

심방세동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는 정상적인 심박동을 회복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물치료, 수술치료, 전극도자 절제술 등을 시행합니다.

맥박수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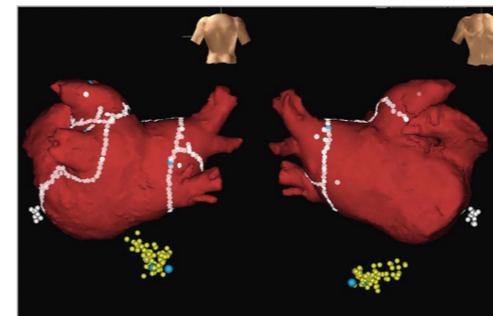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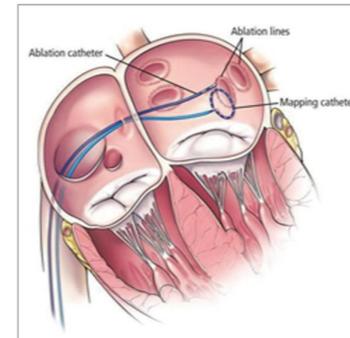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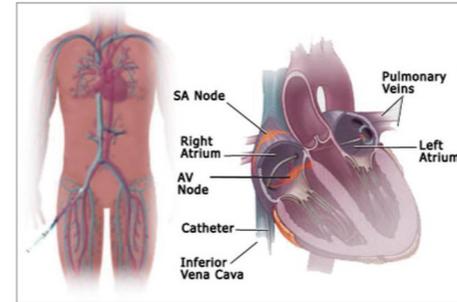
심방세동이 오래된 경우 맥박수만 조절해서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맥으로 전환

지속성 심방세동을 정상맥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물 요법과 함께 전기적 심율동 전환술이 사용됩니다.

전극 도자 절제술

약물로 정상맥이 유지가 되지 않고 심방세동이 재발하는 경우, 대퇴정맥을 통하여 심장내로 들어가 심방세동의 발생 부위를 제거함으로써 심방세동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3차원 장비를 이용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수술 치료

심방이 너무 크거나 다른 심장병이 있는 경우 수술로서 심방세동을 조절하고, 혈전이 가장 많이 생기는 좌심방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심방세동의 합병증

심방세동인 경우 심방은 정상적인 수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심방 안에 잘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동맥을 타고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중풍)이 발생하게 되고,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게 되면(혈전색전증) 그 위치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젊고 심질환이 전혀 없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정상인에 비하여 뇌졸중(중풍)의 위험도가 4-5배 가량 됩니다.

뇌졸중(중풍)의 조기 증상



위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